

2025 불가리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정부 해산 후 정부 수립 불발로 '임시정부 체제'가 지속	4
나. 유로존과 생겐 조약 가입 추진으로 경제·외교적 입지 구축	5
다. EU 기금 활용 SOC 등 기반시설 개선과 국방 현대화 추진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2. 시장 분석	1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3
나. 교역	14
다. 투자	18
라. 프로젝트	2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5
가. 교역	25
나. 투자 진출	28
다. 협력 유망 분야	30
III. 진출전략	31
1. PEST 분석	31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2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3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2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4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잡정)	45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7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EU 기금 유입 기대로 GDP는 전년 대비 2.2% 성장 예측

• **물가 상승 완화에 GDP 2.2% 성장 기대, 다만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

- 2024년 물가상승률은 2.9%로 전년 9.5% 대비 완화, 실소득 증가와 외국인 투자 확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
- 올 초 연립내각 해산, 조기 총선을 실시했으나 정부 수립 불발, 10월 총선에서 정부가 수립되어야 정치적 안정성과 EU 기금 유입 확대에 이어질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예상)
인구	백만 명	7.0	6.9	6.9	6.8	6.5	6.4	6.4
명목 GDP	십억 달러	68.6	69.1	80.3	84.1	101.6	109.2	118.5
1인당 명목GDP	달러	9,863.0	9,919.3	11,683	13,101.	15,720	16,980	18,510
실질성장률	%	3.6	-3.8	4.2	2.6	6.8	6.5	6.2
실업률	%	5.6	7.4	5.3	4.9	5.1	4.9	4.7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1.2	2.8	11	9.5	2.9	3.6
재정수지(GDP대비)	%	-1.0	-3.0	-3.7	-4.2	-3.1	-3.1	-2.9
총수출	십억 달러	32.6	31.1	40.6	47.3	46.9	47.6	51.2
(對韓 수출)	"	0.4	0.4	0.3	0.3	0.4		
총수입	"	35.9	33.2	44.5	-51.8	50.8	52.9	57.3
(對韓 수입)	"	0.2	0.2	0.2	0.2	0.2		
무역수지	십억 달러	-3.3	-2.1	-3.9	-4.5	-3.9	-5.3	-6.1
경상수지	"	1.2	-0.5	1.4	-0.5	-0.3	0.9	0.2
환율(연평균)	현지국/달러	1.74	1.59	1.66	1.78	1.81	1.79	1.69
해외직접투자	십억 달러	0.8	0.4	0.9	1.1	1	-	-
외국인직접투자	십억 달러	2.2	3.6	2.5	3.2	4.4	-	-

자료: EIU, IMF, 한국무역협회, World Bank (조사 시기: 2024년 7월)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정부 해산 후 정부 수립 불발로 '임시정부 체제'가 지속
- ※ 유로존과 쎅겐 조약 가입 추진으로 경제·외교적 입지 구축
- ※ EU 기금 활용 SOC 등 기반시설 개선과 국방 현대화 추진

가. 정부 해산 후 정부 수립 불발로 '임시정부 체제'가 지속

□ 49대 총선 이후 수립된 연립정부는 9개월 만에 실각, 이후 임시정부 체제 지속

- GERB당과 PP-DB당의 연립정부는 9개월 만에 이견으로 내각 해산
 - 2023년 4월에 치러진 49대 총선 결과, 정치적 견해차가 있던 1당(GERB(유럽발전시민당)-SDS(민주세력동맹))과 2당 (PP(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DB(불가리아 민주당)) 간 총리직을 9개월씩 돌아가며 순환하는 방식을 합의, 연립정부 구성 성공
 - 그러나 PP-DB의 첫 총리 임기 9개월이 지나고 GERB의 내각 수립 때 양 당 간 이견이 발생, 결국 순환 정부가 유지되지 못하고 실각했으며, 그 후 연립정부 수립이 불발되어 2024년 6월 또 한 번의 조기 총선 실시
- 2024년 6월 총선에도 불구, 정부 수립이 되지 않아 10월 다시 총선 실시
 - 2024년 6월에 진행된 조기 총선 결과, GERB는 68석으로 1당이었으나 기존의 2당인 PP-DB는 40석으로 3당으로 밀렸으며, 튀르키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MRF가 45석으로 2당으로 부상하는 등 기존 정치 판세에서 변화
 - * 이는 기존 GERB와 PP-DB 등 유력 정당의 협치력 부족,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국민의 피로가 쌓인 결과라는 분석, 실제로 49대 총선은 40.6%의 투표율이었으나 50대 총선은 34.4%로 감소
 - 하지만 연립정부 수립에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2024년 10월 27일 조기 총선을 실시, 정당별 의석수는 GERB가 69석으로 1당, PP-DB가 37석으로 2당, 부흥당이 35석으로 3당으로 올라왔으며, 121석 이상을 확보한 단일 정당이 없어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여전히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

〈2021~2024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별 득표 결과〉

정당명	49대 총선 (2023.4.2)		50대 총선 (2024.6.9)		51대 총선 (2024.10.27)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유럽발전시민당(GERB)	26.5	69	24.7	68	26.4	69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민주당(DB)	24.6	64	14.3	40	14.2	37
부흥당(Revival)	14.2	37	13.8	38	13.4	35

자료: 불가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기: 2024년 10월)

나. 유로존과 쎅겐 조약 가입 추진으로 경제·외교적 입지 구축

□ 유로존 가입과 완전한 쎅겐 가입을 통한 유럽 통합 증진을 우선 목표로 설정

● 유로존 가입(2025년 7월 목표)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법규 도입

- 2020년부터 '유로존의 대기실'이라 불리는 'ERM-2'에 가입, 현지화인 레프(BGN)와 유로화(€) 간 고정환율제도 도입으로 유로화 도입 준비 중

* € = 1.95583 BGN 고정환율 적용 중

- 원활한 유로화 정착을 위해 유로화 도입 법안을 미리 채택. 이 법안은 현지화에서 유로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

* 유로존 가입을 반대하는 부흥당(Vazrazhdane)을 제외한 타 정당은 유로존 관련 법안을 지지

- 유로존 관련 입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경제 지표상 마스트리흐트 기준*의 물가상승률 조건만 충족하면 유로존 가입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재무부 의견

* 유로존 가입을 위해서는 ①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3% 이내, ② 유로존 내 '최저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3개국*의 평균 상승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의 1.5%p 이내 유지해야 하나 불가리아는 물가상승률 조건 미충족

- 하지만 유로존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유로존에 편입되어 유로화를 쓰기 시작하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응답. 우익 정당인 부흥당은 설문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것도 통화 변경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설문조사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유로화 도입에 거부감이 큰 경향 존재 (BTA뉴스)

● 2024년 3월 조건부 쎅겐 가입에 성공한 불가리아는 완전한 쎅겐으로 전진 중

- 쎅겐 가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불가리아의 국경 관리 부실과 부패 방지 제도 미흡을 이유로 반대해 온 상황

* 쎅겐 조약은 조약국 내 특별한 절차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며, 가입에 성공하면 화물 물동량 증가와 인적 교류 확대, 흑해 활용도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가 2023년 말 반대에서 찬성 의견으로 선회하면서 공항과 항구를 통한 입국에 있어서는 조약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건부 쎅겐'이 발효

- 육로 개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5년까지 완전한 쎅겐 조약 가입을 목표로 설정하여 육로를 통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 물류난 해소와 EU 통합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

*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육로 쎅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비치고 있으나 '2024 유럽 국가 내무부 장관 회의'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쎅겐 가입이 최우선 의제로 논의되는 등 이슈에 관한 관심은 높은 편

- 쎅겐 조약 가입을 위해 튀르키예, 세르비아 등 비EU 국가 방면의 국경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드론 무력화', '열광학 카메라', '종합 관제 시스템' 등 첨단 보안 장비를 도입,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예정

다. EU 기금 활용 SOC 등 기반시설 개선과 국방 현대화 추진

□ EU 기금 예산 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4%에 불과 (불가리아 재무부)

• 기금 집행의 전제가 되는 주요 개혁 미채택으로 인해 EU 기금 집행이 지연

- EU 기금은 다년도 지출 예산(MMF)과 차세대 EU 기금(NGEU)으로 분리, 간 지출 예산의 134억 유로 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5%에 불과한 상황
- 정부 수립 지연뿐 아니라 부정부패 관련법, 내부고발자법, 자연인 파산법 등 EU에서 요구하는 중요 법안 개정 논의 중단도 큰 이유
- 기금을 통한 기반시설 프로젝트(고속도로, 철도, 공항, 에너지 등)는 경제발전의 핵심. 추후 정부 수립 후 관련 법안 통과 등이 추진되면 기금 유입이 될 전망

〈2021~2027년 불가리아 EU 기금 집행 상황 (2018년 물가 기준)〉

(단위: 십억 유로)

기금명	배정액	집행액	잔액	기금 세부 구성 (십억 유로)
다년도 지출 예산 (MFF)	6.9	0.43	6.47	인적자원 개발(1.65), 환경(1.53) 등 2021~2027년 배정 예산
차세대 EU 기금 (NGEU)	13.4	0.68	12.72	경제 회복 탄력성 계획(13.4)
총계	20.3	1.11	19.19	

주: 예산은 불가리아 정부가 초기에 신청했던 예산에서 프로젝트 변경 등으로 조정된 현재 예산

자료: 불가리아 재무부 (조사 시기: 2024년 7월)

〈2024년 불가리아 EU 기금 추진 프로젝트(계획안)〉

기금 구분	발주처	프로젝트명	예산 (백만 유로)	사업기
경제 회복 탄력성 계획 (RRP)	불가리아 보건부	병원 현대화 사업	213.9	계약일부터 43개월
	불가리아 에너지부	에너지 저장시설 건설	797.8	계약일부터 48개월
	불가리아 교육과학부	교육기관 현대화 사업	348.5	계약일부터 48개월
	불가리아 교육과학부	이공계 교육시설 건립	294.1	계약일부터 42개월
	소피아시	소피아 지하철 3호선 연장	111.3	계약일부터 48개월

자료: 불가리아 재무부 (조사 시기: 2024년 7월)

□ 불가리아군 현대화를 통한 NATO 합동작전 능력과 흑해 연안 안보 강화

- **13개의 중점 현대화 대상 무기체계를 공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장기적으로 도입 추진**
 - 스트라이커 장갑차 200여 대, F-16V 전투기 16대 구매를 포함한 방공망 체계 개선, 3D 레이더 구축, 대함미사일 체계 도입 등 다양한 계획 공개
 -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목적 헬기, 디젤 잠수함, 자주포 등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하고 주변국에 수출한 무기도 중점 현대화 대상 체계에 포함
- **폴란드, 루마니아 등 주변국에서 흥행 중인 한국산 무기체계에도 관심 표명**
 - 13개 중점 프로젝트에 포함된 다연장 로켓 조달에 우리 무기인 천무, 조종사 훈련,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FA-50 경공격기에도 관심
 - * 방산 전시회 '헤무스(HEMUS) 2024' 한국관 운영을 통해 대통령, 조달 관계자 면담 등 홍보 지속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내각 해산 후 조기 총선 실시, 완전한 쉐겐과 유로존 가입을 위한 노력
- ※ (경제) 인플레이션 개선과 유로존 도입 준비, EU 경제 회복 추세에 따라 경제 발전 기대
- ※ (산업)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자동차부품·전자기기·ICT·에너지 분야 유망
- ※ (정책) 2050년 EU의 'FIT FOR 55'에 맞는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 수정

가. 정치 환경

□ 내각 해산 후 조기 총선 실시, 완전한 쉐겐과 유로존 가입을 위한 노력

- **2021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7번의 총선을 실시했으나 정부 수립 불발**
 - 내각을 구성했던 PP-DB당과 GERB당이 9개월씩 돌아가며 정국 운영을 계획했으나 2024년 3월 총리 교체 시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각이 해산
 - 조기 총선 결과, 대형 정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정당 간 협치 불발 등으로 인해 연립정부 수립 실패, 2024년 10월 27일 또 한 번의 조기 총선 실시
- **임시정부는 유로존과 완전한 쉐겐 조약 가입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운영**
 - 2025년까지 유로존과 완전한 쉐겐 가입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국정 운영, 애초 2025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입 조건을 미충족, 유럽중앙은행은 2026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분석
 - * 유로존을 위해서는 금리, 환율, 정부 재정, 물가 요인이 모두 안정적이어야 하나, 불가리아는 유로존에서 가장 물가가 낮은 3개국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조건이 미비
 - ** 타 유로 사용 국가와 비교해 임금과 생활 물가가 낮은 편인 불가리아는 유로화 도입에 따른 전환 인플레이션(Transitional Inf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BTA뉴스)
 - 2024년 공항을 통해 다른 쉐겐 조약 국가로 이동 시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건부 쉐겐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육로는 개방되지 않은 상황
 - * 최근 중부 유럽발 이민이 정세가 심화되고 있는바 육로 개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나. 경제 환경

□ 물가상승률 완화와 EU 경제 회복 추세, EU 기금 유입으로 회복 본격화

• 물가 상승 완화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와 투자 확대로 내수경제 회복 본격화

- 식품과 공산품 등 수입 물가와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영향을 받아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도 신속한 공급원 다변화로 안정화 추세에 진입 (9.5% → 2.9%)

* 가스, 원유 등 러시아 의존율이 높던 에너지 수입 대상을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등으로 다변화

- 물가 안정화로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와 내수 소비가 개선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까지 이어질 전망 →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

〈주요 기관별 2023~2028년 불가리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기관명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EU	1.8	1.9	2.9	-	-	-
IMF	1.8	2.3	2.5	2.8	2.7	2.7
EIU	1.9	2.2	2.4	2.9	3.1	3.2

자료: EU('24. 5월 전망치), IMF('24. 6월 전망치), EIU('24.5월 전망치) 자료 종합 (조사 시기: 2024년 7월)

• ECB 금리 인하 등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불가리아 경제도 전년 대비 성장 기대

-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피벗 단행, 4.5%에서 1%p 인하해 경기 부양 지원

- ECB 경제 전망 기준 EU는 2024년부터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 2025년에는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며, 직전 대비 전망치 상향 조정

- EU 주요국에 부품류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임가공 형태의 제조업이 발달, 주요국의 경기 회복은 불가리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주로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교역 (EIU)

• EU 기금 유입을 통한 인프라 개선이 시작됐으나 정식 정부 수립 여부가 중요

- EU 기금 유입 프로젝트 시작, 고속도로·철도·통신망 등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에 투입, 투자 매력도 증가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연결 기대

- 다만 정부 수립 지연으로 승인받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용 예산 증가 우려, 정치적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기금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

다. 산업 환경

□ 2023년 GDP 중 3차산업의 비중이 67.6%로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구조

- 2023년 기준 3차산업이 67.6%, 2차산업이 28.9%, 1차산업이 3.5%를 차지

- 불가리아는 3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며, 3차산업은 2022년까지 감소하다 반등했고 2차산업과 1차산업은 2022년까지 증가하다 감소로 전환

〈2019~2023년 불가리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억 레바,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1차	39	3.8%	42	4.0%	60	4.9%	72	4.9%	55.7	3.5%
2차	261.1	25.1%	263	25.1%	289.8	23.8%	429.8	29.5%	466.1	28.9%
3차	739.4	71.1%	740.8	70.8%	865.6	71.2%	953.6	65.5%	1,090	67.6%
총계	1,039.5	100	1,045.8	100.0	1,215.4	100	1,455.4	100	1,611.8	100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조사 시기: 2024년 7월)

□ 자동차부품·전자기기·ICT·에너지 분야 유망

- (자동차부품) 유럽 내 자동차부품 공급망 확대로 불가리아에도 관련 투자 증가

- 불가리아에 완성차 제조공장은 없으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자동차부품 투자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된 부품(센서, 와이어, 하네스 등)은 주로 완성차 업체로 납품
- 수도인 소피아(Sofia)와 대도시인 플로브디프(Plovdiv) 지역 주변에 자동차 클러스터(Trakia Economic Zone)가 형성되어 다수의 자동차부품 가공 및 조립업체 운영
- 최근 튀르키예에 진출한 부품 기업 중 일부가 외환,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불가리아로 설비 이전을 추진하는 등 EU 역내로 이동하는 수요 발생

- (전자기기) 서유럽 등 세계적 기업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 가공 후 재수출

- 타 EU 회원국 대비 낮은 인건비를 활용, POS 단말기, 카지노용 게이밍 머신 등 전자기기의 부품을 공급받은 후 조립·가공하여 재수출

* 2023년 Eurostat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9.3유로로, EU에서 가장 낮은 수준

- 현지 대형 POS 단말기 제조업체는 핵심 부품 대부분을 한국에서 조달

* 2023년 한국의 對불가리아 수출 14위 품목(MTI 8149 기준)이 전자응용기기로 POS용 부품류

- (ICT) 전통적으로 유럽의 ICT 아웃소싱 강국, ICT 스타트업 성장 확대
 - 불가리아는 BASSCOM(Bulgarian Association of Software Companies)을 통해 ICT 분야 지원하고 있고 HP, Vmware, Oracle 등 소프트웨어 선두 기업 유치
 - * 1인당 IT 전문가 수 측면에서 세계 3위, 2023년 기준 8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운영
- (에너지) 발칸의 에너지 허브로서 가스, 전력뿐 아니라 수소도 집중 육성 계획
 - 2023년 기준 5억 6,000만달러의 전력, 2억 4,000만 달러의 가스를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에 수출, 가스거래소인 ‘발칸 가스 허브’ 구축 등 중심국으로 성장
 - * 남동유럽 국가 간 가스를 거래하는 거래 플랫폼 구축 완료, 국가 간 배관 연결도 확대
 - EU는 자히르(ZAHYR) 수소 밸리에 2억 유로 배정, 연간 200톤 수소 생산능력 및 7,000개의 수소 일자리 창출 기대, 그리스와 250km의 수소 파이프 연결 사업도 진행 중
 - * 수소 밸리는 R&D, 생산, 공급 등 산업의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EU는 지역별로 사업을 승인

라. 정책·규제 환경

□ (ESG 정책) 그린딜, 공급망 실사법 등 기업 ESG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정책 패키지 ‘FIT FOR 55’ 공개
 - 2050년 탄소 중립이 목표인 ‘유럽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13개의 법안으로 구성 (개정법 9개 + 신규법 4개)
 - 이 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CO² 배출 규정이 핵심 법안
- EU에 제출한 녹색 전환 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 수정 추진
 - 불가리아는 전체 에너지 중 29.9%를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 감축을 위한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을 수립하여 발표
 -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 초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계획을 수정하여 EU에 제출했으나 세부 계획 미비로 1차 반려,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제출한 상황
 -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 화력 발전을 감소시켜야 하나,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면 지역 실업 문제 등 사회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 호소
 - 수정 제출안(‘24.7.30)에는 신재생에너지, 3,000MWh급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수소 에너지 개발지구 구축 등 초안에 비해 야심 찬 계획을 제출
 - * 수정안이 EU의 승인을 받아야만 ‘EU 경제회복기금(RRF)’의 에너지 전환 예산을 활용 가능

• (FDI 심사) 외국인 직접투자 검토 제도 도입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제외)

- 핵심 인프라(공항, 수자원, 에너지 등)나 핵심 기술(사이버 보안, 통신, 항공우주, 방산 등)에 투자하거나 200만 유로 이상 투자, 10% 이상의 불가리아 기업 지분 획득 시에는 미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

* 단, 한국은 우방국으로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 배제 가능

[ESG 관련 대응 사례] : United Bulgarian Bank (금융업)

- 금융업은 ESG 분야에 있어 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파급력을 가진 산업
- 은행의 자금이 에너지, 금속 채굴업, 화학산업, 제조업, 농업 등으로 투자되면 해당 기업이 어떤 식으로 ESG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ESG 백서』 발간
- 『ESG 백서』 발간을 통해 투자 산업이 기후와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 변화와 혁신 관련 유무, 유럽의 규제에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
- 예를 들어 농업 분야는 비료, 연료, 가축, 사료, 저장 기반 등을 입력하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계산 공식을 정립, 계산된 수치를 대출 시 고려 요인으로 활용

□ (보조금 규제)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EU 외 보조금 제한 법령 통과

• 2023년 7월부터 EU 역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한 조치 시행

- EU 집행위는 외국의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지원금을 받고 EU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막기 위해 역외 보조금 규제법안 발표 및 채택
- 기업 결합, 공공 조달 참여 시 사전에 보조금 수혜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장 경쟁에서도 경쟁 왜곡이 발생할 경우 EU 차원에서 보조금 수령 관련 조사 가능

2. 시장 분석

- ※ EU 회원국 중 낮은 인건비와 세율을 보유, 투자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
- ※ 유럽의 가공 공장으로서 높은 역내 교역 비율, 공산품과 에너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 규모가 작은 시장이나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IT 기술력이 우수한 국가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 에너지 허브로서도 역할

- EU 회원국으로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
 - 유로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칸 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EU 역내국 및 인근 동유럽 시장 진출에 효율적이며 안정된 경제 성장 진행 중
 - 소득세·법인세율이 10%*로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 유로화와 고정환율로 외환 리스크가 적으며 낮은 임금을 활용한 투자 진출 가능
 - * 정부에서 제조업 투자 유치를 장려, 고실업 지역 내 제조업 투자 진출 시 일정 조건 한도 내에서 법인세 완전 면제도 가능
- 러-우 사태 이후 에너지 운송 대체 경로의 중요한 중개국으로 부상
 - 불가리아는 유럽 남동부에 위치하여 흑해와 접해있을 뿐 아니라 튀르키예, 그리스,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중동 등에서 오는 에너지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중개국으로서의 지정학적 강점을 보유
 - 유럽의 에너지 대체 공급원의 연결점 역할을 함으로써 EU 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제조업 기반이 미약해 공산품과 임가공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 일반 소비자부터 핵심 부품 소재를 주로 국외에서 조달, 세계 경제에 민감한 편
 - 제조업 기반이 약한 편으로 자동차, 의료기기, 전자기기 등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수입에 의존
 -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주요 교역국(독일, 튀르키예, 루마니아 등)의 물가 상황이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불가리아로 전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

□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동유럽의 틈새시장이자 유럽 내 작은 IT 강국

• 인구 650만 명, 1인당 국민소득 1만 6,000달러 내외의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 규모가 작은 시장으로 바이어의 최소 거래 물량이 적은 편, 대기업의 시장 관심도가 낮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

* 2019~23 對불가리아 수출 중소기업(개사) : ('19)824 → ('20)845 → ('21)849 → ('22)907 → ('23)1,165

• IT 정보통신 분야에 강점을 보유, 다양한 4차산업 스타트업 운영 중

-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107Mbps로 세계에서 12위, 5G 통신망도 구축 확대 중으로 AI, 데이터 기술, 중소기업의 IT 기술 활용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2019년 5G 통신망 설치율은 0%였으나, 2023년 67%가 5G를 이용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

- 불가리아는 예전부터 러시아, 유럽에 컴퓨터 기술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하던 IT 아웃소싱 기지였으며, 현재는 AI, 핀테크, 헬스테크 분야 스타트업 설립 활발

나. 교역

□ 불가리아 수출입 동향

• 2023년 불가리아 교역량은 약 1,0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감소 (GTA)

- 2023년 불가리아의 수출액은 약 476억 달러, 수입액은 약 535억 달러, 무역수지는 58억 달러 적자를 기록, 전년 대비 전체적인 교역량은 6% 감소

- 티U 예측 기준 2024년 교역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005억 달러,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보합인 476억 달러, 수입액은 529억 달러 기록 전망

〈2019~2023년 불가리아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수출입	2020	2021	2022	2023	2024(예상)
수출 총액	31,954	41,150	49,919	47,759	47,600
수입 총액	35,054	46,203	57,953	53,533	52,900
교역량	67,008	87,353	107,872	101,292	100,500
무역수지	-3,100	-5,053	-8,034	-5,774	-5,300

자료: Global Trade Atlas (조사 시기: 2024년 7월)

□ 국가별 수출입 동향

• 2023년 기준 EU 역내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의 60% 차지 (GTA)

- 불가리아는 서유럽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조립 가공 후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편

* EU 역내 수출 비중 : (2020년)65.3% → (2021년)66.1% → (2022년)63.3% → (2023년)60%

- 독일 백색가전의 핵심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가공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섬유 원단을 수입 후 봉제 가공하여 최종 의류를 주변국으로 재수출

- EU 역외 국가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튀르키예와 교역이 많고, 미국도 10대 수출국으로 2020년부터 수출이 증가하며 최근 3년간 매년 10억 달러 이상 수출 기록

* 한국은 2024년 기준 불가리아의 33위 수출국 (일본은 63위, 중국은 12위)

〈2020~2023년 불가리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1	독일	5,122	6,134	7,041	6,535
2	루마니아	2,909	4,143	5,069	4,407
3	이탈리아	2,198	3,097	3,757	3,437
4	튀르키예	2,051	2,545	2,991	2,727
5	그리스	2,126	2,862	3,255	2,647
6	프랑스	1,225	1,498	1,659	1,556
7	벨기에	1,110	1,333	1,279	1,496
8	스페인	767	1,124	1,313	1,253
9	미국	646	1,025	1,111	1,140
10	폴란드	796	1,037	1,129	1,122

자료: Global Trade Atlas (조사 시기: 2024년 7월)

• 2023년 기준 EU 역내 국가로부터 수입이 전체 수입액 중 58% 차지

- EU 회원국 중 독일, 루마니아, 이탈리아, 그리스 등으로부터 수입이 많으며, 비회원국이나 주변국인 튀르키예,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량도 많은 편

* EU 역내 수입 비중 : (2020년)60.9% → (2021년)60.4% → (2022년)55.5% → (2023년)58%

-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 7위 수입국

* 한국은 2022년 기준 불가리아의 37위 수입국 (일본은 36위)

〈2019~2023년 불가리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1	독일	4,246	5,675	6,260	6,635
2	튀르키예	2,465	3,560	4,883	4,401
3	루마니아	2,572	3,487	3,989	3,644
4	이탈리아	2,492	3,055	3,462	3,604
5	러시아	2,138	3,511	6,302	3,505
6	중국	1,788	2,505	3,355	2,881
7	그리스	1,730	2,536	3,411	2,351
8	네덜란드	1,392	1,960	2,394	2,193
9	폴란드	1,302	1,654	1,918	2,089
10	헝가리	1,373	1,697	1,825	1,870

자료: Global Trade Atlas (조사 시기: 2024년 7월)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전자기기, 보일러, 원유, 동, 구리류, 곡물류, 차량부품 등을 주로 수출

- 불가리아는 서유럽에서 하청받은 전자기기, 기계류, 화학제품 등을 가공해 판매
 - * 불가리아 내 제조업 클러스터는 기판, 변환기 등 조립 제품 위주
- 구리 광산에서 채취한 자원과 사료용 밀, 옥수수 등 곡물류도 주력 수출 품목

〈2021~2023년 불가리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 분류	품목	2021	2022	2023
85	전자기기	4,335	4,640	5,384
84	보일러, 기계류 등	3,332	3,707	3,877
27	원유	2,285	5,698	3,791
74	동, 구리류 제품	3,750	4,244	3,705
10	곡물류	1,977	1,991	2,303
87	차량류	1,483	1,594	1,684
39	플라스틱 제품류	1,475	1,590	1,440
30	의약품류	1,161	1,192	1,348
26	오어, 슬레지류	1,278	947	1,220
90	정밀제품류	1,002	999	1,127

자료: Global Trade Atlas (조사 시기: 2024년 7월)

• 전자기기, 원유, 보일러, 차량류,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요 수입 품목

- 흑해 연안 정유시설과 가스거래소가 있어 원유와 가스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이 높은 편이며, 서유럽발 하도급 제품에 대한 원부자재 수입도 증가 추세

- 제조업 기반이 약해 전자제품과 승용차, 의약품 등도 수입에 의존

* 자동차의 경우 주로 독일·체코·슬로바키아 등 EU 국가와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

〈2021~2023년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 분류	품목명	2021	2022	2023
85	전자기기	5,061	6,192	6,477
27	원유	5,166	9,692	5,971
84	보일러, 기계류 등	4,543	5,065	5,397
87	차량류	2,943	3,652	4,193
39	플라스틱 제품류	2,352	2,473	2,266
26	오어, 슬레지류	2,452	2,603	2,233
30	의약품류	2,074	1,926	2,229
72	철	1,986	2,324	1,805
74	동, 구리류 제품	1,078	1,251	1,262
73	철 및 금속 제품	895	1,035	1,089

자료: Global Trade Atlas (조사 시기: 2023년 7월)

□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수출 성공 사례: 화장품 기업 'F'사 (불가리아 수출)

- 국내 기업은 불가리아 수출이 중단된 기업으로 KOTRA 소피아 무역관에서는 대형 유통망 'd'사에 국내 기업의 제품을 적극 홍보, 벤더사와 화상상담을 추진하고 초도 수출에 성공
- 유통망은 벤더사와 협의하여 국내 기업 제품의 유통망 입점을 결정
- 2024년 7월 기준 'F'사는 불가리아 수출 최대 물량인 10만 달러 이상 수출계약 성사

HS 코드 (6단위)	세부 품목	對韓 수입액 ('23, 6단위)	對韓 수입 증가율 ('23)
330499	화장품	6,538,325	23.7%

- 성공 사유 : CPNP 인증을 먼저 취득해 유럽 진출 준비를 완료한 기업으로, 무역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파트너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수출 확대에 성공
- 마케팅 Tool : 온/오프라인 융합 마케팅

필수 인증	CPNP
성약 소요기간	1년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온라인 서치)

다. 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2023년 외국인의 불가리아 직접투자는 36.2억 유로로 전년 대비 37.6% 증가
 -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유입 외국인 투자, 유출 해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
 - 주요 유입 투자국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키프로스, 독일 등 EU 역내 국가
 - * 한국의 불가리아 투자 누계액은 5,540만 유로로 50위 차지
 - 업종별로는 금융업, 정보통신업의 투자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미 투자 진출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

<2019~2023년 불가리아 주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현황>

(단위: 억 유로)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외국인 직접투자	16.4	29.7	15.2	26.3	36.2
해외 직접투자	4	2.2	2.7	5.3	5.5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 (조사 시기: 2024년 7월)

〈2023년 불가리아 주요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국〉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가명	투자액
1	스위스	803.7
2	오스트리아	458.4
3	네덜란드	438.1
4	벨기에	361.6
5	헝가리	354.9
6	룩셈부르크	172.0
7	이탈리아	164.4
8	러시아	158.4
9	몰타	126.5
10	키프로스	112.3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 (조사 시기: 2024년 7월)

□ 투자 유치 중점 분야

• 투자청은 투자 유망한 산업을 선정, 적극적인 투자 유치 진흥 추진

- (자동차) 2022년 기준 GDP의 11% 기여, 7만 5,000명 이상의 종사자와 350개 이상의 기업, 80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 수도 주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등 확대 기초
- (정보통신) 2023년 기준 GDP의 4.5% 기여, 5만 8,000명 이상의 종사자와 4,600개 이상의 기업, 41억 유로의 매출액, 매년 16.8%씩 성장하는 핵심 산업으로 아웃소싱부터 혁신 기술 스타트업까지 분야도 다양한 편
- (바이오) 2023년 기준 4만 2,500명 이상의 종사자와 21억 이상의 매출액, 850개 이상의 기업이 영업 중인 핵심 기간산업

〈2022년 불가리아 투자 유치 중점 분야〉

번호	투자 유치 중점 분야
1	자동차
2	정보통신(IT)
3	바이오
4	전자기기
5	전자공학
6	기계공학

자료: 불가리아 투자진흥청 (조사 시기: 2024년 7월)

□ 투자 유치 인센티브

•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등급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행정 간소화) 정부 행정 절차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사회보험 감면)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감면 혹은 환급
- (교육 보조금) 직원의 직무 교육을 위한 국가 보조금 지급
- (인프라 보조금) 기업에서 인프라 구축에 투자 시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 (세금 감면) 토지 매수 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때 세금 면제

〈불가리아의 외국인 투자 등급 및 특혜〉

비고	우선 등급	A 등급	B 등급
투자 금액	1,500만 유로	100만~500만 유로	50만~250만 유로
고용 창출 개수	50~150개	25~150개	10~100개
특혜	Class A에 더하여 1) 민관 파트너십(PPP) 가능 2) 토지 용도 변경 시 세금 면제 3) 국유지 매수 시 특혜가격 제공 4) R&D 지원 등	Class B에 더하여 1)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기업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1) 행정 처리 간소화 서비스 2) 국유지 매수 최우선권 제공 3) 직원의 직무 교육 보조금 지원 4) 사회장보보험 감면

주: 투자 등급은 투자금과 고용 창출 고려하여 등급 부여
 자료: 불가리아 투자청 (조사 시기: 2024년 7월)

• 불가리아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우대

- (첨단산업 R&D 투자) 초기 투자 시점부터 3년 내 추가 투자한 금액이 초기 투자금의 25%를 넘을 경우 정부가 초기 투자금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
- (제조업 투자) 초기 투자 시점부터 3년 내 추가 투자한 금액이 초기 투자 금액의 50%를 넘을 경우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10%를 보조금으로 제공

□ 주요 경쟁국 투자 동향

• 2023년 일본은 누적 1억 800만 유로, 중국은 누적 1억 5,000만 유로 투자

- 일본의 야자키(Yazaki, 케이블, 자동차부품업), 타케다(Takeda, 의약품), 세가(Seга, 게임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불가리아에 진출
- 중국은 농업과 제조업에 투자. 제트에스(ZS)가 플로브디프에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 샤오미(Xiomi), 하이얼(Haier) 등 전자기기 기업도 진출

□ 우리 기업의 투자 동향 및 사례

• 1997년 현대중공업의 국영 변압기 제조사 인수, 2011년 남동발전과 SDN의 태양광 발전 분야 협력 투자 진출 이후 실질적인 투자 진출은 소수

- 주요 투자 기업 중 하나인 현대일렉트릭(구 현대중공업)은 회사 경영 효율화의 하나로 현지 공장을 러시아계 회사에 매각, 2019년 11월 불가리아에서 철수
- 우리 기업(의류 OEM 등)이 현지의 낮은 인건비를 고려하여 투자 진출을 검토했으나 대부분 중단되었고, 2023년 자동차부품 기업과 2024년 원전 건설업체가 신규 진출

■ 성공 사례 : 태양광 발전(남동발전, SDN)

□ 태양광 발전소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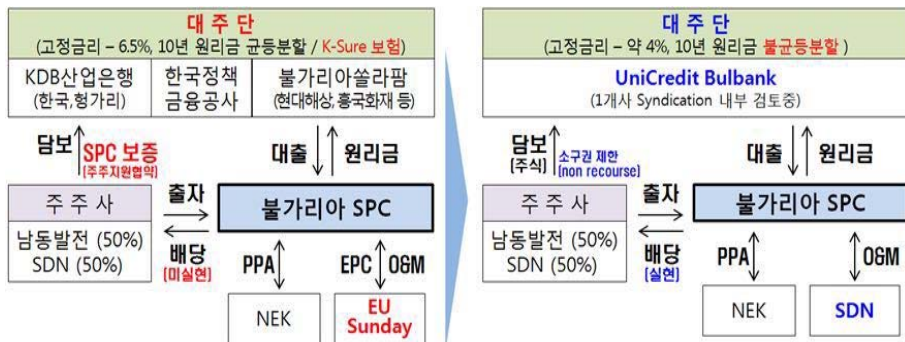
- 진출 기업명 : 남동발전, 에스디엔(SDN) 합작 투자
- 설비 용량 : 41.62MW(ASM 20.14MW, RES 21.48MW)
- 위치 : 불가리아 Veliko Tarnovo 지역
- 착공/준공일 : 2010. 12/2011. 12(ASM), 2012. 2(RES)
- 총 사업비 : 139,697천 유로(2,229억)[환율 1,595원/유로]
- 변경 사업비 : 142,302천 유로(2,206억)[환율 1,550원/유로]
 ASM : 71,041천 유로(1,099억)/RES 71,261천 유로(1,107억)
- 사업 구도



〈ASM〉



〈RES〉



□ 투자 진출 유의사항

• 주요 애로사항으로 느린 행정 처리 속도와 시스템, 낙후된 인프라 시설

- 행정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 디지털 행정 도입이 늦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불가리아어로 작성해야 할 부분도 많아 복잡하며 서류 검토에도 보수적
-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화 계좌 개설 시 은행은 EU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복잡한 서류 제출이 의무, 지속적인 보안을 요청하는 등 간간한 검토를 진행
- 도로, 철도, 전력 체계 등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 EU 기금 유입과 함께 현대화가 추진되고는 있으나 인프라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믿을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 발굴, 공인된 투자 유치 전담 기관 활용

- 주요 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에 대한 주의 필요
- IBA(불가리아 투자청), NCIZ(불가리아 산업단지공단) 등 정부 투자 유치 지원기관 활용

□ 불가리아 투자 유치 지원기관

• 불가리아 투자청(IBA, Investment Bulgaria Agency)

- (대표 이메일) iba@investbg.government.bg
- (대표 전화) +359-2-985-5500
- (홈페이지) <http://www.investbg.government.bg>
- (지원 업무) 투자 진출 희망 기업 대상 분야별 전문가 및 투자 유망 지역 추천

• 불가리아 산업단지공단(NCIZ, National Company Industry Zones)

- (대표 이메일) office@nciz.bg
- (대표 전화) +359-2-8902-902
- (홈페이지) <http://nciz.bg/en/>
- (지원 업무) 투자 유망 지역 정보 제공, 투자 현지 시찰 지원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대표 이메일) bcci@bcci.bg
- (대표 전화) +359-2-8117-400
- (홈페이지) <http://www.bcci.bg>
- (지원 업무) 현지 경제 일반정보 제공, 기업 등록, 투자 기업 비자 취득 지원

라. 프로젝트

□ 불가리아 프로젝트 동향

- 불가리아 등 중·동부 유럽은 EU 기금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가 활발
 - EU 기금 중 SOC 구축을 지원하는 결속기금과 경제회복기금이 중·동부 유럽에 투입. 이를 통한 교통, IT, 의료,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
- 그러나 EU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특성상 역내 기업의 수주 비중이 높은 편
 - 한국 등 역외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부족, EU 프로젝트의 역내국에 유리한 경쟁 구조(EU 기술 조건 요구, 현지어 사용 등) 등으로 역외 기업 실적은 저조
 - 2014~2019년 발주된 EU 기금 100대 프로젝트(금액 기준) 분석 결과, 현지 기업의 수주가 85건으로 일부 고도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 위주로 해외 기업이 수주

〈2014~2019년 EU 기금 활용 불가리아 100대 프로젝트 추진 결과 (금액 기준)〉

(단위: 억 유로, %)

유형	국가	자국 기업		해외 기업		컨소시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철도		6	1.6	2	3.4	1	0.8	9	5.8
지하철/트램		9	1.9	2	0.2	3	3.1	14	5.4
도로		27	5.7	0	0	0	0	27	5.7
에너지		0	0	2	0.4	0	0	2	0.4
상하수도		23	2.1	1	0.1	3	0.5	27	2.6
기타		20	2.7	1	0.1	0	0	21	2.9
합계		85	14.3	8	4.3	7	4.4	100	23.1

자료: Contractors All OPs(Bulgaria)를 KOTRA 소피아 무역관 편집

□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 사례

- 현지 프로젝트 관심도는 늘고 있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수주 난항을 겪고 있음
 - 2017년 소피아 시내 E-Ticketi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출을 추진했으나,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에 실패하며 수주 실패
- 하지만 지속적인 수주 노력으로 최근 우리 기업의 성공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중
 - 2019년 소피아 지하철 스크린도어 프로젝트(11백만 유로)에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에 성공
 - 2020년 EU 기금을 활용한 현지 보건부의 코로나 방역용품 긴급 공공 조달(62만 유로)에 2개 한국 기업이 한국산 방역용품(PCR 검진 키트 등) 조달에 성공

- 2024년 코즐로두이(Kozloduy) 신규 원전 2기 설계 및 시공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 준비 중

□ 현지 프로젝트 진출 시 참고사항

- **2021~2027 운용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 OP) 사전 분석**
 - OP란 EU 기금 집행에 관한 기금 수혜국의 마스터플랜으로, OP 내에는 프로젝트 분야, 우선순위, 주요 프로젝트, 시행 기관 등이 포함
 - 따라서 2021~2027년 불가리아의 OP 사전 분석을 통해 조달 절차 전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 등 프로젝트 주요 정보에 대한 선제 발굴 및 사전 준비가 가능
- **EU 기금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파이낸싱이 포함된 진출 모델 개발**
 - 수원국에 자체 예산 매칭을 요구하는 EU 기금의 특성상 재정 상황이 어려운 불가리아 등 동유럽국은 파이낸싱 방안을 포함한 입찰 방식을 선호
 - 따라서 기존 도급형 방식보다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의 투자 개발 사업 방식의 입찰을 통한 현지 수주 경쟁력 확보 필요
- **공신력 있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 EU 기금 프로젝트는 유럽 기술 사양, 현지어 입찰서류, EU 프로젝트 레퍼런스 등 역외국의 프로젝트 입찰을 저해하는 진입 장벽이 높아 공신력 있는 현지 협력 기업 발굴 및 컨소시엄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 제고 필요

□ 2025년 예정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발주처명	규모(EUR)	프로젝트 단계	발주 일정
1	패스트 다뉴브 2 (Fast Danube 2) 불가리아-루마니아 국경 다뉴브강 현대화 공사	불가리아 교통부	112M	계획	미정
2	불가리아 소피아 국제공항 2터미널 개선 및 3터미널 신축 공사	소피아 공항	-	설계 진행 중	본공사 미정
3	국경 트럭 주차장 건설	불가리아 교통부	26M	계획	미정
4	부르가스 항구 현대화 공사	불가리아 교통부	9M	계획	미정

자료: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체 조사 (조사 시기: 2024년 6월)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교역 동향

- 2023년 기준 한국과 약 5억 5,000만 달러 교역, 전년 대비 15.9% 증가
 - 2023년 한국의 對불가리아 수출액은 약 1억 9,600만 달러로 17.4% 증가
 - 2023년 한국의 對불가리아 수입액은 3억 1,06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1% 증가
 - 최근 3개년간 무역적자 지속, 2023년 적자폭은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

〈2020~2022년 한국-불가리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21	2022	2023
수출액	167	167	196
수입액	436	311	358
교역액	603	478	554
수지	-269	-144	-162

자료: 한국무역협회 (조사 시기: 2024년 7월)

□ 품목별 수출 동향

- 한국은 합성수지, 자동차, 섬유, 화장품, 타이어 등 원자재, 공산품 위주 수출
 - 페트병 원료인 폴리에틸렌 수지, 플라스틱 원료인 아크릴 PMMA 수지 등 합성수지가 최근 2년간 수출 1위 품목, 2위인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도 증가
 - 화장품, 아연도강판, 음료류는 수출액이 증가했으나 섬유류는 수출액 감소

〈2022~2023년 품목별 수출 동향 (MTI 4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품목	2022년	2023년	증가액
1	합성수지	41	47	6
2	승용차	19	28	9
3	전기자동차	3	12	9
4	폴리에스틸섬유	10	8	-2
5	화장품	6	8	2
6	타이어	7	7	0
7	기타자동차	5	6	1
8	TV카메라및수상기	6	6	0
9	아연도강판	1	5	4
10	음료	3	4	1

자료: 한국무역협회 (조사 시기: 2024년 7월)

• 한국은 사료, 동조가공품, 의류, 나프타, 곡류, 의약품 등 수입

- 동물 사료용 해바라기씨, 옥수수를 포함한 곡류가 수입되고 있으며, 불가리아 하청 공장에서 제작한 의류나 가방 등을 수입
- 사료와 나프타, 자동화기기의 수입액이 증가했고 동조가공품, 기타 금속광물, 의약품, 밸브류는 수입액이 감소

〈2022~2023년 품목별 수입 동향 (MTI 4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입 품목	2022년	2023년	증가액
1	사료	46	119	73
2	동조가공품	41	34	-7
3	직물제의류	28	32	4
4	나프타	0	19	19
5	곡류	48	18	-30
6	기타금속광물	21	15	-6
7	자동화기기	9	13	4
8	편직제의류	11	11	0
9	의약품	9	8	-1
10	밸브	8	7	-1

자료: 한국무역협회 (조사 시기: 2024년 7월)

□ 한국의 對불가리아 수출 성공 사례

• K-Food의 인기로 힘입어 한국 떡볶이의 불가리아 수출 성공

- 식품 전시전에서 아시아 식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자 하는 유력 식품 바이어 발굴 후 한국의 컵 떡볶이 제조 기업과 화상상담을 주선
- 상담 후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이슈와 생산 및 배송 일정 조율 등을 KOTRA 소피아 무역관에서 밀착하여 신속하게 애로 해소 지원 → 2만 달러 이상 초도 수출 성공
- KOTRA 소피아 무역관 개최 'K-Goods Week' 오프라인 판촉전에도 참여하는 등 공격적인 판촉 활동으로 생소하던 떡볶이에 대한 인지도 개선 → 2024년 수출액과 매출 증가 추세

• 수출 중단 바이어 대상 '수출 불씨 살리기' 추진, 폴리에스테르 섬유 수출 성공

- KOTRA 소피아 무역관은 코로나19 이후 수출이 중단된 국내 기업의 파트너사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산 섬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국내 업체에 해당 내용을 전달
- 국내 업체의 출장 시 KOTRA 소피아 무역관 직원이 동행해 친환경 소재로 만든 신규 샘플 전달
- 대면 상담 후 1주일 만에 2건의 성약 발생, 6만 5,000달러 수출 성공

나. 투자 진출

□ 투자 진출 동향

- 2023년 한국의 對불가리아 누적 투자액은 약 2억 3,254만 달러로 에너지 분야 집중
 - 누적 투자 총액의 63.6%가 '전기, 가스 공급업'으로 주로 태양광 발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숙박·음식업 투자가 나머지를 차지
 - 주요 투자 진출 기업이었던 (주)현대일렉트릭이 2019년 철수했으나, 2023년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과 2024년 플랜트 건설업체가 불가리아에 신규 진출

〈2019~2023년 한국의 對불가리아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현황〉

(단위: 천 달러)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제조업	19,292	-	-	76	-	19,368
숙박·음식업	52,204	-	-	-	-	52,204
도매·소매업	2,469	-	-	1	-	2,470
부동산업	1,500	-	-	-	-	1,500
건설업	3	-	-	-	-	3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141,792	4,029	-	1,966	-	147,787
정보통신업	8,089	-	-	-	-	8,08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	-	-	-	1,000	1,00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25	-	-	-	-	125
합계	225,474	4,029	0	2,043	1,000	232,54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조사 시기: 2024년 7월)

- 2023년 기준 불가리아의 對한국 누적 투자액은 152만 달러
 - 전기·전자 분야가 전체의 60%로 많으며 유통업, 숙박·음식점업 등 진출

〈2019~2023년 불가리아의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현황〉

(단위: 천 달러)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제조업(전기·전자)	870	-	-	-	-	870
도·소매(유통)	191	-	-	82	-	273
숙박·음식점	154	-	-	-	-	154
정보통신	95	-	-	-	-	95
금융보험	78	-	-	-	-	78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50	-	-	-	-	50
합계	1,388	-	-	82	-	1,5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조사 시기: 2024년 7월)

□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 사례

• (성공 사례) 국내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 2011~2012년에 걸쳐 국내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협력 투자로 42MW의 태양광 발전소를 현지에 건립(총 투자비 1억 5,400만 유로)
- 초기 진출 시 프로젝트 비용을 산업은행 용자로 조달했으나, 2017년 현지 상업은행으로 리파이낸싱을 완료함에 따라 이자율 감소, 순이익 증가
- 공공-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여 산업은행의 용자를 조달하는 등 해외 투자 진출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한 사례

• (실패 사례) 불가리아 내 대규모 생산 노동력 확보 애로로 투자 진출 중단

- 2018년 해외 글로벌 신발 브랜드를 주문 제작 생산하는 한국 기업 A사가 불가리아 내 유럽 수출용 신발 생산공장 투자 진출을 검토
- 하지만 A사는 충분한 공장 운영 인력(5,000명)을 구하지 못해 투자 진출 검토 중단
- 불가리아 투자 진출을 고려한 B사(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또한 현지 생산 인력 부족, 非EU 국가 대비 저렴하지 않은 인건비로 세르비아에 최종 투자 진출을 결정

다. 협력 유망 분야

□ 군 현대화, 에너지 그린딜, 기반시설 개선 프로젝트 협업 유망

• (국방) 2032년까지 서방 무기체계 도입을 통한 13개 ‘군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NATO 연합군과 효율적인 합동 작전을 위해 육군은 다연장 로켓(MLRS), 155mm 자주포, 전술 교신 시스템 등 도입 준비. 구 소련제 무기체계를 대체할 예정
- 흑해 연안의 기뢰 도발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해군은 연안 대함체계 구축. 미사일 전투정, 다목적 디젤 잠수함 등 다양한 해양 무기체계 조달 추진
- 제공권 확보를 위해 전투기 현대화(F-16 Block 70 16대 구매 계약 완료)와 훈련기(체코제 L-39 대체기), 3차원 대공 레이더, 방공망 미사일 체계 구축 등 발주 계획

• (에너지) EU 그린딜 정책의 일환인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프로젝트 협력 유망

- 2023년 원자력(40%), 화력(29%), 신재생에너지(26%)로부터 에너지 생산 중, 2030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27%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도록 전환 계획
- 2024년 1분기,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5% 줄여 EU국 중 감소율 1위 기록,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 수정안이 승인된다면 더 효과적인 녹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에 수정 제출한 에너지 계획에 따라 다방면의 혁신 기술 도입도 공식화, 해상 부유 풍력, 수전해 등 친환경 발전소 확대 설치, 수소 밸리 구축과 수소 연구개발(R&D)의 계획을 공개
- 생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송배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신기술 전력 효율화 분야도 협력 수요 다, 프로젝트 추진 시 변압기, 송·배전기 등 중전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9월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녹색 전환 관련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원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2기의 설계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준비 중이며, 체결 시 관련 기술 및 기자재 기업의 불가리아 진출 증가 예상

• (인프라) EU 기금 유입으로 교통,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프로젝트 계획

- 불가리아에 배분된 EU 기금 중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결속기금(Cohesion Fund)의 비중이 높은 편
→ 인프라 개선을 통한 투자 매력도 증진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높은 편
- 유입되고 있는 경제회복기금(RRF)의 23.5%가 디지털 통신망 전환, 교통망 개선, 지역 개발, 그린 전환 등 교통, 통신, 환경 인프라 개선에 투입될 예정
- 루마니아 국경 대교 현대화, 철도 복선화, 신규 전동차 구매(EMU), 소피아-바르나 고속도로 조속 완공, 항구 현대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

※ 유럽 전반적인 경기 회복 추세와 EU 자금 유입에 따라 불가리아 경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다양한 프로젝트 기회 발굴 가능

1. PEST 분석

<p>Political 정치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와 통합을 강화하는 추세 * 완전한 쉐켄과 유로존 가입을 정책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추진 • EU 자금 활용을 위한 법규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지연 • 정식 정부 수립 지연으로 조기 총선 진행 예정 • 조기 총선 후 정식 정부 수립까지 임시정부가 국정 운영 •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투표율도 지속 하락
<p>Economic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연평균 GDP 성장률 2.2% 예상 (EIU) •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EU 주요국 대비 높은 편 • EU 자금 유입이 지속될 예정이며 정치적 위험이 해소되면 유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형 프로젝트 기회 포착 가능 •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 증가로 자동차부품, 화학, 정보통신산업 등 혁신 산업 지속 확대 • ECB 금리 피벗으로 유럽 경제 회복 기대
<p>Social 사회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 • 서유럽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 출산율은 반등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빈부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인한 수직적 사회계층구조 •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좋은 브랜드를 선호
<p>Technological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스마트 그리드, ESS 등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스타라 자고라 지역 수소 허브 구축 시작 등 실질적 진행 단계 • 5G 구축, AI 기술 등 ICT 투자 촉진으로 디지털 전환 진행 • 혁신 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구축 • 수도와 지방 도시 간 정보 격차가 심하고 중소기업의 IT 기술 활용률은 EU 주요국 대비 낮은 편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고품질, 가성비)
- EU 주변국에서 방산, 원전 프로젝트 등 다수 진행
- 한국산 차량이 현지에서 경찰차, 택시 등으로 운행되는 등 인지도 증가 추세
- 확실한 납기 준수, 품질 관리능력 보유
- 소비재의 경우 자연 친화적 원료로 건강한 이미지

약 점(Weakness)

- EU의 높은 인증 장벽에 대한 부족한 준비
- EU-CBAM이나 C3SD 등 신규 규제 대비 미흡
- 중국산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대
- 불충분한 노동력으로 현지 고용에 어려움
- 시장 규모로 인해 최소 주문량이 적어 대기업의 대응력 부족
- EU 기업 대비 프로젝트 대응능력 부족

기 회(Opportunity)

- 2021~2027 EU 기금 유입 프로젝트 다수
-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 유럽 전반 경제 회복 추세
- 낮은 인건비, 법인세로 외투 기업 클러스터 보유
- IT 우수 인력 보유, 유럽 1위 IT 아웃소싱 기지
- 전력 수출국, 가스·원유 등 에너지 허브국
- 유럽, 아시아 사이에 위치, 유럽 진출 교두보

위 험(Threat)

- EU의 개혁 요구로 EU 기금 유입 지연 가능성
- EU 가입 후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지속
-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 상황에 민감한 편
- 경제적으로 높은 주요국 의존으로 경기 민감
-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정책 지연 빈번
- 에너지 체계 구식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불가리아의 기회요인과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유럽 소비재 진출의 전진기지 활용 전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주변국 프로젝트 참여 이력을 활용한 에너지(스마트 그리드, 수소, RES, 원전) 현대화 사업 참여	에너지 체계 현대화 프로젝트 참가
WO 전략 (기회 포착)	• EU 기금 활용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활용, CE 인증 보유 혁신 의료기기 수출 전략	의료기기 공급업자와 협업하여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WT 전략 (위험 대응)	• 역내 기업 대비 부족한 대응능력, 미국 등 주요국 정치상황에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납기 준수와 품질 관리를 통한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 참여	방산, 고속도로 건설, 기관차 도입 등 대형 프로젝트 대상 '핀셋'형 입찰 전략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한류 문화 융합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확산에 따른 한류 수혜 소비재 프로모션 강화 • 가격에 민감한 시장 특성 고려, 합리적인 가격과 MOQ 설정 필요 • 한국문화 확산에 따른 '프랜차이즈' 서비스 진출 추진
혁신 의료기기,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기금을 활용한 의료 선진화 프로젝트에 참여 확대 • 현지 에이전트 활용 민간·국립병원 의료기기 구매 수요 파악 • 코로나19 이후 개선된 의약품, 의료기기 인지도 활용 마케팅
에너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국내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 발전) 진출 역사 등 진출 이력 어필 • 노후화된 송·변전 체계 개선, 스마트 그리드 등 혁신 기술 수요 대응
교통·통신망 등 인프라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중인 EU 기금(경제회복기금, 다년간기금) 수혜 분야 집중 목표 • 철도, 5G 통신, 토목, 방산 등 주요 분야 발주처와 네트워크 구축 • 기술력 및 국내외 수주 경험 기반, 현지 파트너 기업과 입찰 참여
K-Goods K-Medical K-Energy K-Inf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Goods) 한류 문화와 융합한 소비재 온·오프 통합 마케팅 • (K-Medical) 혁신적인 의료기기 수출로 동유럽 시장 개척 • (K-Energy) 원전, RES, 송·변전, 스마트 그리드 분야 수요 대응 • (K-Infra) EU 기금 수혜 분야(교통/통신, 친환경) 프로젝트 집중 수주 및 군/경찰 현대화 프로젝트 진출 기회 모색

3-1. (K-Goods) 한류 문화와 융합한 소비재 온·오프 통합 마케팅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K-문화 확산으로 한국과 한국 소비재에 관한 관심 증대
 - * K-Pop, 드라마, 게임 등 한류 문화 확산세 지속
 - * 현지 5개 대학에 한국어 전공 혹은 한국어 강좌 등 약 1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정 운영
- ※ 한국 소비재 매장 다수 오픈, 한국산 제품 취급 바이어 증가 추세
 - * 불가리아 소피아 시내에 한국 화장품 전용매장 5개 오픈, 한국 식료품점 및 다수 한식당 운영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19 이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며 비필수 소비 지출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
 - 1인당 소비 지출은 2019년 2,590유로에서 2023년 4,211유로로 63% 성장
 - 미용 등 비필수 소비 지출 역시 2019년 29.5%에서 2023년 31.5%로 2%p 증가

〈2019~2023년 불가리아 소비자의 1인당 소비 지출, 비필수 소비 지출 추이〉

(단위: 유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인당 소비 지출	2,590	2,584	2,959	3,563	4,211
비필수 소비 지출 비율	29.5	28.8	29.1	29.9	31.5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KOTRA 소피아 무역관 편집) (조사 시기: 2024년 7월)

- **MZ(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
 - 2023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19억 5,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9% 이상 증가했으며, 인터넷 사용자 중 53%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2023년 기준 전체 광고시장의 34.2%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는데, SNS나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젊은 세대 증가가 이유
 - * 불가리아 채널별 소비층 : 유튜브(10~40대), 페이스북(30~40대 남성), 인스타그램(20~30대 여성)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스킨케어·미용기기 등 뷰티 제품, 라면·음료·소스 등 간편 식품 유망

- (뷰티) 한국 화장품은 천연 성분을 보유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인식 확산, 수입 바이어가 늘어나면서 수입 브랜드와 제품군이 다양해지는 추세
- (식품) 2023년 기준 음료·면류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각각 5위, 4위로 상위 수입국이 미국, EU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식품의 인기는 높은 편

• (진출전략) 온·오프라인 마케팅, 유연한 가격전략 및 프랜차이즈 서비스 수출

- 온라인으로 제품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온·오프 통합 마케팅이 중요하며, 가격에 민감해 합리적 가격 설정과 최소 주문량 설정이 핵심
- 한국 문화 확산에 힘입어 소비재 수출을 뛰어넘은 프랜차이즈 서비스 진출 유망, 파트너사 발굴 후 한국식 편의점, 요식업 등 노하우 전수 확대 추진

3-2. (K-Medical) 혁신적인 의료기기 수출로 동유럽 시장 개척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EU 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다수 발주
- ※ 불가리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노후 기기 교체 필요
- ※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 독일산 등 고가의 제품 위주라서 한국산이 경쟁력 보유
- ※ 팬데믹 이후 늘어난 한국산 진단기기, 의약품 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초고령화 사회, 의료시장 규모는 2023년 58.6억 유로로 5년 전 대비 23% 성장**
 -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중증(암, 당뇨, 순환계 등) 발병 확대, 구형 의료기기의 사용 연한 초과, 사립 병원 증가 등 최신 의료기기의 수요는 확대 추세
 - * 2023년 기준 불가리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7%로 초고령 사회에 해당
- **EU 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지속, 신규 의료기기 다수 수입 전망**
 -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이며 EU 기금 내 보건 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 현대화 사업(2억 1,000만 유로)을 추진 중

<2024년 9~10월 공고된 최신 조달 프로젝트>

(단위: 유로)

프로젝트명	마감 기한	금액
종양학 진단기기 조달	2024년 10월 3일	5,300만
핵자기 공명장치 조달	2024년 9월 9일	4,300만
의료 관리 시스템 구축	2024년 9월 16일	1,200만

자료: 전자조달시스템 (KOTRA 소피아 무역관 편집) (조사 시기: 2024년 10월)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영상진단 기기 등 의료기기, 의료 소프트웨어, 의약품 등**
 - 과거 저가 중국산 구매를 선호하던 추세와 달리 중증, 만성질환 대응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술력, 혁신성을 보유한 고품질 의료기기 조달 증가
 - 한국산 초음파기기, CT 및 엑스레이 기기가 인기, 코로나19 치료제 수출 성공 이후 의약품에도 관심이 제고, 의료기관용 소프트웨어 수요도 지속
 - * EU로부터 인증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2021년 말 미국산과 함께 유일하게 불가리아에 수출

• (진출전략) 국립·민간병원에 납품 경험이 풍부한 현지 파트너와 네트워크 구축

- 불가리아 보건부에서 인증한 기업만이 국공립병원에 기기 등 납품이 가능한바 병원과 네트워크가 있는 파트너사와 협력해 현대화 프로젝트에 공동 입찰
- EU 주요국 대비 낮은 소득 수준을 고려, 중고 제품 판매나 리스 등 다양한 금융 옵션 제공이 중요, 물리적 거리를 고려한 밀착 A/S 방안 제안도 필요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바이어 코멘트〉

-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CE 인증(MDD) 취득이 중요하며 차후 MDR 대응도 지속 필요
- 한국산 의료기기의 장점으로 가성비가 좋고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있으나 약점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A/S가 느린 편,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거래 전 논의 필수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 중고나 리스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3-3. (K-Energy) 원전, RES, 송·변전, 스마트 그리드 분야 수요 대응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2024년 한국 기업이 신규 원전 설계 시공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송·변전 체계의 노후화로 전력의 효율성이 낮아 전반적인 전력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
- ※ 효율화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리드(ESS 배터리 기술 등), SMR 등 혁신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
- ※ 수소 허브 구축에 따른 수소 연결 배관, 수소 발전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한 인콰이어리 발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4년 한국 기업이 신규 원전 2기의 설계 시공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국내 기업이 신규 원전 설계 시공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설계 계약 절차 준비 중 (원전 기술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의 AP-1000 도입)
- 2024년 하반기 중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 체결 후 원전 관련 국내 기업의 불가리아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 * 현지 진출을 위한 법규, 노무, 세무, 비즈니스 환경 등 전반에 대한 숙지가 필요

• 송·변전 체계 노후화가 심한 편, 전력 공급 효율화를 위한 혁신 기술에 관심

- 공산 정권 때 설치한 송·변전 체계는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 전력 수요 증감에 따른 적절한 공급 조절이 어렵고 손실률도 높아 효율성이 낮은 편
- 발칸의 에너지 허브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송·변전 체계 현대화와 스마트 그리드, 해상 풍력 등 혁신 기술 활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
 - * 차세대 에너지 기술은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수정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에서 계획을 검토 중

• EU의 투자를 받아 수소 허브 구축 진행, 관련 장비와 부품 수입 수요 발생

- 그리스에서 불가리아까지 250km의 수소 파이프 연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프로젝트 관련하여 KOTRA 소피아 무역관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2024년 9월)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발전기, 변압기, 송·변전 기기, ESS 배터리, RES 관련 장비, 파이프 등 유망**
 -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중전기(발전기, 변압기, 터빈, 송·변전 기기 등)가 유망. 중동 붐 이후 새로운 유망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면 이에 필요한 기자재와 기술의 수출도 유망한 편
 -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에 명시된 RES, 수소, 스마트 그리드 체계, ESS 배터리 등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한국산 혁신 에너지 기술의 불가리아 진출이 기대
- **(진출전략) 유망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
 - 현지 사업 참여를 위한 서류 준비, 행정 절차 등은 불가리아어로 진행되므로, 유망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

3-4. (K-Infra/Defence) EU 기금 수혜 분야(교통/통신, 친환경) 프로젝트 집중 수주 및 군/경찰 현대화 프로젝트 진출 기회 모색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EU 기금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 ※ 2021~2027년 기간 EU는 불가리아 내 203억 유로의 기금을 조정 배정
- ※ NATO와 합동 작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군 현대화 프로젝트도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3년부터 경제회복기금(RRF)과 다년도기금(MMF) 집행이 본격 시작**
 - RRF는 배정된 EU 기금의 36%를 차지, 동 기금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다만 일부 사업은 EU의 법령 개정 요구로 일시 중단
 - * 2021~2027년 불가리아에 배정된 EU 기금은 MMF와 NGEU로 구성됨. NGEU는 EU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이 중 RRF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주로 혁신, 교통/통신, 친환경 등 EU 집중 투자 분야에 투입**
 - 집행 계획에 따르면 혁신(25.8%), 교통/통신(22.5%) 등에 예산이 투입 예정. 고속도로, 철로 복선화, 항만 현대화, 기관차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준비
- **군 현대화를 위해 GDP의 2% 국방비 지출 확대, 국경 보안 체계 현대화도 추진**
 - 장갑차, 전투기, 대공미사일은 조달 진행 중. 다연장 로켓과 레이더, 잠수함, 공격용 헬기 등 아직 많은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며 세부 계획은 미정
 - * 우리 기업도 프로젝트 진행 때 'RFI(정보요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 대상 홍보 지속
 - 조건부 쉹겐 조약 가입에 따라 국경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현대화 추진. 드론 무력화, CCTV, 국경 경찰용 화기, 차량, 관제 체계 등 업그레이드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유망 분야) 전동차·건설기계 등 중장비, 군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장비 체계 유망

- (프로젝트) 토목 프로젝트 참여. 전동차·건설기계 등 중장비 수출 유망, 해외 공사 사례 및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납기 준수 이력 등 어필 중요
- (방산) 다연장 로켓, 훈련기(경공격기), 조종사 시뮬레이터, 드론 무력화 체계, 국경 관제 시스템 등 군·경 현대화에 필요한 무기체계 수요에 대응
 - * 국방부는 한국산 무기의 기술력과 주변국 수출 사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높게 평가

• (진출전략) 발주처 대상 꾸준한 접촉, 기술력 등 차별화 전략으로 직간접 수주 추진

- 발주처, 유망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은 기본이고 주로 EU 역내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는바 계약조건 준수, A/S 등에서 차별화 전략 필요
 - * 한국 기업은 계약조건(납기, 스펙 등)을 충실히 지키고 가격도 괜찮다는 평가 다수
- 최근 EU에서 발표한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제출 자료 준비 필요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 ('23/US\$백만)	153	대한수입액 ('23/US\$백만)	6.4
	선정사유	2023년 불가리아의 對한국 화장품 수입은 644만 달러로 2018~2023년 기간 지속 성장		
	시장동향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천연화장품, 마스크팩, 클렌징, 기능성 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도 인기		
	경쟁동향	한국은 불가리아의 화장품 수입 5위로 프랑스, 독일, 체코, 크로아티아 등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불가리아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CPNP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활용		
품목명 2	HS Code	1902	수입관세율(%)	0
라면	수입액 ('23/US\$백만)	28.3	대한수입액 ('23/US\$백만)	0.8
	선정사유	한류 콘텐츠에 관한 관심 증가로 라면 등 한국산 간편식 수요 확대, 전년 대비 수입액 22% 증가		
	시장동향	불가리아 내 한식당 및 한국 식료품 취급점 증가로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 추세		
	경쟁동향	한국은 불가리아의 면류 수입 8위로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러시아, 이탈리아가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면 제품의 60%가 대형 슈퍼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대형 슈퍼마켓 체인 납품 중인 바이어 발굴이 중요		
품목명 3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 ('23/US\$백만)	215	대한수입액 ('23/US\$백만)	2.4
	선정사유	2024년 EU 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노후 의료기기 교체)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불가리아는 의료기기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경쟁동향	독일, 미국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일본 제품과도 경합, 한국산은 진단 기기 위주로 시장 형성		
	진출방안	의료 분야 공공 조달, 대형 병원 파트너 관계 구축을 통한 제품 수출 추진		
품목명 4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류	수입액 ('23/US\$백만)	462	대한수입액 ('23/US\$백만)	0.4
	선정사유	불가리아 내 한국산 중고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기대		

	시장동향	한국산 자동차의 비율은 EU 역내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으나,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 중		
	경쟁동향	오리지널 부품이 아닌 중국, 인도산 대체 부품 사용 등 부품 경쟁 다소 발생		
	진출방안	대형 도매상을 공략, 낮은 MOQ로 인한 물류비와 단가 상승에 대처		
품목명 5	HS Code	8504.40	수입관세율(%)	0
포터블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수입액 ('23/US\$백만)	205	대한수입액 ('23/US\$백만)	0
	선정사유	불가리아 전기차 수는 2018년과 비교해 10배가 늘어난 1만 대를 기록했으며, 공용 전기차 충전소보다는 개인 충전을 선호하는 특성상 포터블 전기차 충전기 유망		
	시장동향	시장에 판매 중인 전기차 충전 케이블의 선택권이 적고, 전용 충전 케이블을 타 차량에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 컨버터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		
	경쟁동향	불가리아 내 가정용 전기차 플러그 제조업체는 없으며, 대부분 독일 등 전기차 인프라 선진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진출방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 특성을 고려, 보급형 전기차 충전컨버터 수출을 통해 시장 선점 및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인프라 프로젝트	선정사유	EU 기금을 활용하여 대규모 도로·교통·통신·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 공사 발주 예정
	시장동향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지속 발표 예정
	경쟁동향	EU 역내 국가가 다수 수주하나,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진입 성공한 우리 기업 사례도 있음
	진출방안	현지 유력 파트너사를 통해 입찰정보 획득,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지는 것이 관건
품목명 2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한국 문화 확산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주변국 대비 글로벌 프랜차이즈 진출이 적고, 한국식 편의점 체인도 태동기인 상황
	경쟁동향	도미노, KFC, 맥도날드, 스타벅스 정도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만 진출한 상황, 편의점은 미니마트가 점포 확장 중
	진출방안	대형 파트너사 발굴을 통한 프랜차이즈 인프라 구축과 공격적인 본사 협업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대 전략
품목명 3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경영/행정 정보 서비스 등)	선정사유	10만 명 이상의 우수한 IT 인력을 활용하여 한국산 소프트웨어의 현지화 및 유럽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
	시장동향	뛰어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다수 창업, 1만 3,0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 및 수출 진행 중
	경쟁동향	IBM, SAP, Vmware, Concentrix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선제 진출하여 유럽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중
	진출방안	불가리아 내 IT 기업들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현지화 및 테스트 마케팅을 추진하여 유럽 시장 진출

□ (소비재) 한국 소비재 판촉전 개최 및 유망 프랜차이즈 불가리아 진출 지원

• 불가리아 대형 쇼핑몰 연계 Korea-Goods Week 개최(2025. 2분기, 온·오프라인)

- 한국 소비재 수입 바이어 협업, 주요 쇼핑몰 내에서 한국 소비재* 판촉전 개최

* 참고 : 2024년 행사 실적

- (지원 대상)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전반

- (오프라인) 방문객 4,000명, 매출액 5만 유로 이상, 50개 이상 화장품 브랜드 판촉

- (온라인) 4일간 유망 온라인 슈퍼마켓 'ebag'에 한국 판촉 배너 운영, 20개 브랜드 홍보

- CPNP 인증 보유 화장품업체, 유럽 진출 준비*가 된 식품업체 참여 가능

* 가공식품류는 육가공품을 제외한 식품류 수출이 가능하며 미리 KOTRA 소피아 무역관에 문의 요망

• 한국 유망 프랜차이즈 진출환경 조사(자료 발간) 및 사절단 추진 예정

- 소비재에서 영역을 확대하여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지원

- 요식업,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북 발간 예정

- 연중 프랜차이즈 서비스 진출 사절단(안) 1회 추진 계획 (협의 중)

□ 군·국경 현대화, 에너지 전환 계획 등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 지원

• 방산 기업의 불가리아 진출 지원, 원전 관련 진출 기업 지원 사업 추진

- 방산 상황 분석 및 리포트 발간, 미팅 주선, 교신 지원 등 연중 지원 지속

* MLRS, 디젤 잠수함 등 진출 가능한 우리 무기체계를 분석하여 면밀히 진행 상황 F/U 추진

-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효율화 및 풍력, SMR 등 혁신 에너지 기술 보유 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참여 지원을 위한 A to Z 밀착 지원

*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에 반영된 혁신 기술 도입 사업 집중 모니터링 예정

- 원전 설계 시공 관련 진출 기업 현지 정착,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등 지원

* 법무 지원 애로 해소 창구 설치, 법무법인과 연간 계약을 통한 전문 Q&A 서비스 제공

- 우리 기업 진출 전 정보 공유를 위한 『진출 가이드북(안)』 발간 예정(2024년 4분기)

* 법인 설립, 노무, 세무, 인센티브, 관련 법규, 건설 관련 규정 등 진출에 필수적인 정보 전달

□ 2025년 지속 집행 예정인 EU 기금 수혜 프로젝트 수주 밀착 지원

• EU 기금 수혜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사업(연중 상시)

- 교통/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입찰 정보 확보 및 적시에 국내 기업 공유
 - * '한-불 비즈니스 클럽'을 활용, 대형 파트너사와 네트워크를 지속 유지하여 프로젝트 일정 등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고 대응 가능 기업에게 전달 예정
- 본사 유관부서 협업을 통한 대응 가능 국내 기업 DB 구축 추진
- 발주처 사전 접촉 후 프로젝트 발주 일정에 따라 우리 기업과 사전 준비
 - * 내무부, 국방부, 교통부 등 수요 부서 조달 담당자와 네트워크 확대 중, 지속 접촉 예정

□ 유망 품목 특화 무역(온라인)사절단 추진 예정

• 불가리아 유망 품목(종합소비재) 특화 무역사절단 구성

-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소비재의 수출 지원을 위한 종합 무역사절단 운영
- 국내 기업 5~10개사 규모의 소규모 사절단 구성을 통해 상담 매칭 확률 제고

□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 (맞춤형 화상상담) 내수 및 초보 기업 대상 맞춤형 화상상담 지원(연중 상시)

- 한-불가리아 상공회의소 등 현지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이어 수요 발굴
- 화상상담, 사후 교신 지원 통한 국내 기업의 성약 가능성 제고

• (지사화) 무역관 전담 직원을 통한 현지 진출 희망 기업 연간 지원(연중 상시)

- KOTRA 소피아 무역관 지사화 전담 직원이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직원 역할을 수행
- 연간 15개사 운영 중이며 정보 조사, 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등 지원

첨부 4

'25년도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분야	전시회명	일시/장소
화장품	2025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농업 전시회 (AGRA)	2월 18~22일/플로브디프
식품	2025 불가리아 식품 전시회 (Inter Food & Drink Bulgaria)	11월(잠정)/소피아
의료기기	2025 불가리아 의료 전시회 (Bulmedica)	5월 28~30일/소피아
기술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기술 전시회 (International Technical Fair 2025)	9월(잠정)/플로브디프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동현	관장	소피아 무역관	+359-2-400-5574	rhee100@kotra.or.kr
2	박민	과장	소피아 무역관	+359-2-400-5571	mp920@kotra.or.kr

2025 불가리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